

청년기 생활설계 진단척도 개발

Development of diagnostic scale for life planning in late Adolescence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강 사 최보아*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Instructor : Choi, Bo 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tandardized scale to diagnostic life planning in late adolescence. A preliminary 32 item scale was develope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 a survey. 896 people responded to an online survey using the preliminary scale. A series of test, such as test-retest, item-to-total correlation, factor analysis and Cronbach' α reliability were conducted using the survey data and a scale comprising 31 items was constructed finally. The diagnostic scale for life planning in late Adolescence consisted of seven factors : ① complete growth minds ② life- plan ③ variety experiences ④ close relationships ⑤ management of healthy body ⑥ practical finance-plans ⑦ active preparation of future job. The scale is useful as a guideline for managing life of the late Adolescence. And it is helpful to them to make plan for the better life.

▲주요어(Key Words) : 청년기(late Adolescence), 생활설계(life planning), 진단척도(diagnostic scale), 발달과업(development task)

I. 연구목적

우리는 불확실성의 세계에 살고 있다. 10년 후의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1년 후 우리 가정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당장 오늘 이 시간 후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인간 삶의 불확실성은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본연의 욕구에 걸림돌이 되어 왔기에, 우리는 미래에 다가올 예측 가능한 사건을 준비하고 대비함으로써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해왔다. 근래에는 인간을 삶의 주체로서의 의미가 강조되면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삶을 관리하고 경영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바람직한 미래를 목표를 세워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생활설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생활설계는 불확실성 속에서 인간 삶의 예측 가능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삶에 만족과 여유를 주는 방법론이기에, 가정학에서 생활설계에 관한 연구의 주된 관점은 주로 삶의 큰 변화가 있는 시기 위주로 전개되었다. 결혼이라는 큰 변화가 있는 시기, 자녀출산이라는 큰 변화의 시기, 그리고 은퇴라는 변화의 시기 즉 결혼준비, 부모준비, 노인(은퇴)준비가 생활설계의 큰 3가지 연구의 주류였다(최보아, 2010).

인간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위의 세 가지 주제 못지않게 큰 변화가 있는 시기가 있는데 바로 청년기이다. 청소년기 이후의 청년기는 향후 성인으로서의 삶 전체를 결정하게 되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시기이다. 현재 청년기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이나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자율성과 의존성 또는 미혼남녀의 결혼준비교육과 관련된 주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향후 펼쳐질 성인의 삶의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청년기 삶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생활

* 주저자· 교신저자 : 최보아 (E-mail : fesseln@hanmail.net)

의 각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총체적 관점의 생활설계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청년기 생활설계를 위한 첫 작업은 바람직한 표준을 설정하는 것인데, 어떠한 모습이 “바람직한 청년기”의 모습인지를 규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바람직한 표준 설정에 있어서 핵심은 청년기라는 하나의 시기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되며 그 시기가 인간 삶의 연속적인 생활주기 선상의 하나의 흐름으로서 앞선 시기와 뒤에 올 시기를 원활하게 연결해 줄 수 있도록 교량역할을 해야 한다. 즉, 바람직한 표준의 설정은 해당 주기의 발달과업의 개념과 일치하므로 이 시기의 발달과업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보아야 한다. 생애 주기적으로 보았을 때, 앞선 시기의 발달과업의 성취가 뒤따라오는 시기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게 되므로 성공적인 청년기 발달과업의 성취는 향후 개인으로서의 성인기를 성공적으로 이끌게 될 것이며 나아가 가정생활주기로서는 신혼기 이후 한 가정의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하도록 그 첫 단추를 끼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택과 결정의 청년기는 더 이상 단지 진로탐색이나 배우자선택이라는 단편적인 과제로만 압축해서 판단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청년기의 발달과업은 청년기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균형 있게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어떻게 해야 보다 나은 성인기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모습이 될 수 있는지, 또 그러한 모습은 어떤 평가지표로 알아볼 수 있는지, 또한 그런 척도에 비추어 바람직한 모습을 위해 청년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

최근 저출산과 만혼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이 시기의 청년들은 부모로부터 경제적, 정서적 독립이 유예되어 20대 중반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성인으로서의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제 2의 청년기 방황을 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청년기를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발달과업을 중심으로 진단해보고 그 진단척도에 의거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나아가 성인으로서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청년기 생활설계 진단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척도의 개발은 청소년과 성인 사이에서 자립과 의존이 공존하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의 성인기로의 원활한 이행을 도울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바람직한 청년기 모습 설정을 위하여 청년기 발달과업을 중심으로 청년기 생활설계 진단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이는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청년기에 속한 본인들이 직접 자가 측정 할 수 있는 편리하고 유용한 척도의 개발이 될 것이다.

II. 청년기와 청년기 생활설계

1. 청년기의 특성과 발달과업

청년기의 특성을 파악하기 전에 먼저 청년기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은 고등학교를 졸업 한 후 결혼과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로 대학생이거나 군입대를 준비하거나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시기에 있는 집단이다. 과거에는 사회적, 경제적 자립이 주로 20대 초반에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교육기간이 연장되고, 직업획득과 결혼이 연기되면서 자립의 시기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으로 이전되었다. 그러면서 20대 초중반의 집단은 성인이면서도 청소년기의 특징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또 하나의 집단이 되고 있다. Baacke(1999)에 따르면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20대를 하나의 동일한 특성의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은 어려우며, 이 시기를 후기 청소년기로 봐야 한다고 하였다.

이 시기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Erickson 발달 이론에 따르면 초기성년기(18-25)에 해당되며, Levinson(1978)에 따르면 성인에의 과도기(17-22)와 성인전기(22-40)의 사이가 된다. 또한 한국인의 상황에 맞는 생애주기를 연구한 김종서에 따르면 청년후기(19-25)에 해당한다(홍봉선·남미애, 2003). 우리나라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로 보고 있고, 민법에서는 만 20세를 성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보호대상으로 보고 있어 만 19세-24세의 연령은 청소년이면서 성년의 특성을 띄고 있는 독특한 시기로 보여 진다.

일반적으로 후기청소년은 19-25세를 말한다(Hurrelmann,

<표 1> 생애주기의 분류

학자	생애주기의 분류
Erickson	유아기(출생-1개월), 초기아동기(1개월-3세), 학령전기(3-5세), 학령기(5-12세), 청소년기(12-18세), 초기성년기(18-25세), 성인기(25-65세), 노년기(65세 이후)
Levinson	아동기·청년기(3-17세), 성인에의 과도기(17-22세), 성인전기(22-40세), 중년에의 과도기(40-45세), 중년기(45-60세), 노년에의 과도기(60-65세), 노년기(65세 이상)
김종서	유아기(0-6세), 아동기(6-12세), 청년전기(12-19세), 청년후기(19-25세), 성인전기(25-35세) 성인후기(35-60세), 노년기(60세 이후)

1999). 19세에서 25세에 속하는 연령집단은 청년기, 청년후기 등으로 명명되는데 청년과 청소년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으로 교육의 종료와 직업세계로의 진출과 같은 경제적 자립, 사회적 자립을 의미하는 결혼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시기를 청년기로 명명하며, 이시기가 개인의 사회화와 적응 및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는 발달의 과도기로 건전한 발달과 사회적인 성격형성을 이루기 위해서 수행해야 할 발달과업에 대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A.W.Chickering(1969)은 청소년기와 성인초기의 발달과업을 7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지적능력, 육체적, 수공적 기술 및 대인관계 능력을 배양하며 둘째, 감정을 통제할 줄 알며 셋째, 자율성을 함양하며 넷째, 정체감을 형성하고 다섯째, 자유로운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여섯째, 목표를 명료하게 설정하고 일곱째, 완전함을 추구한다. Levinson(1978)은 이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현실에 기반을 두지 못하고 다소 과장된 목표로 구성되어 있는 꿈과 희망을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 청년의 목표를 인정해주고 기술이나 지혜를 가르쳐주어야 하며, 청년 자신은 자신의 경력에 전진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자신감을 갖게 해줄 수 있는 지도자를 발견해야 한다. 김종서 외 3인(1983)은 한국 청년들의 발달과업을 지적, 정의적, 사회적, 신체적 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중 주요 발달과업은 진로와 직업을 탐색하고 준비하기, 결혼, 출산, 가정생활에 대한 준비하기, 부모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기, 인생을 살아갈 지침이 될 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대인관계 맺기 등이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년후기의 중심과업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되는데 첫째는 정체감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는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미래의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인물인가 등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다. 자아정체감의 확립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함께 과거와 현재의 경험들을 응집력 있는 자아감으로 통합하고 정체감을 확립하여 자신의 위치, 역할을 인식하고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시기의 집단은 개성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고 무엇인가 몰입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습득해 가는 시기라 할 수 있다(최남숙, 2005). Erickson의 이론에서처럼 이시기의 자아 정체감 확립이라는 발달과업은 정체감의 확립이라는 측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체감 위기를 어떻게 다루느냐의 측면이 후의 성인기의 건강한 정체감 발달을 위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된다고 보고 있다(박아청, 2004). 부모와의 애착형성이 친밀하게 이루어진 경우(이희영·최태진, 2005), 응집성과 적응력이 균형잡힌 가족의 청년인 경우(박장희·정옥분, 2002) 자아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를 볼 때, 이 시기에 정체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생활의 기본지침이 될 수 있는 장기적 생활설계, 목표의 설정, 바람직한 가족환경의 설정

이 필요하다.

두 번째 과업은 진로의 결정이다. Super(1953)는 직업선택을 생애발달과정으로 보고 이 과정을 성장기(출생-14), 탐색기(16-24), 확립기(25-44), 유지기(45-65), 쇠퇴기(65-이후)로 구분하였는데 청소년기 및 성인초기는 진로발달단계 중 탐색기에 놓여 있으며 이 시기의 주요 과업은 직업선택을 명료화하고 구체화하며 실행하는 것이다(윤영란, 2007 재인용). 탐색기는 세 가지 단계로 구분되는데 잠정기, 직업에 필요한 훈련이나 교육을 하는 시기인 전환기, 처음으로 직업을 갖는 시기인 시행기로 나누어진다. 또한 Ginzerberg(1972)의 진로발달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진로 발달은 선택적 단계, 시험적 단계, 그리고 현실적 단계 순으로 발달한다. 그 중 세 번째인 현실적 단계는 18세부터 성인기에 이르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다시 세 가지 하위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자신의 진로탐색의 기회를 알아내고 노력하는 탐색단계, 개인이 직업의 목표를 정하고 진로선택, 결정에 관련되어 구체화 하는 단계, 그리고 자신의 결정에 보다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의사결정을 이행하는 전문화단계가 이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서 진로의 결정은 향후 성인기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업이므로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어떤 직업을 원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선택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박아청, 2004 재인용).

세 번째 발달과업은 친밀한 관계의 성립으로 요약된다. 자아 정체감의 연결선상에서 심리사회적 정체감의 형성이 요구되는데 심리사회적 정체감이란 개인에 있어서의 내적 조직과 그 개인이 속한 집단 내에서의 상보성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청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이웃, 또래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정체감을 만들어간다.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이성과의 바람직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여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가족관계에서도 책임감 있는 한 가족구성원으로 서 위치를 확립하고 나아가 친구 이웃 등 인간관계의 확대를 경험하여 사회 속에서의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 이 시기의 과업에 해당된다. 또한 미래의 자아상과 인생설계에 있어서 모범이 될 만한 역할모델을 설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도움과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멘토를 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2. 청년기의 생활설계의 진단 및 척도

청소년기가 급격한 신체적 성장으로 인해 불안을 경험하는 시기라고 한다면, 청년기는 또 다른 불안의 시기이다. 즉 고등학교의 시기까지 다분히 수동적이고 주입식 위주의 교육에 익숙하여 삶을 살아오다 졸업과 동시에 사교에 자율성이 요구되고 생활이 자유로워지면서 급격한 생활환경의 변화로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되어 방황과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국한된 학교의 영역에서 벗어나

인간관계가 확대되고 취업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는 시기이다.

생활설계는 앞으로의 생활변화에 대처하고 보다 나은 미래의 생활상을 만들기 위한 주체적, 의식적 활동이고 궁극적으로는 개인 및 가족의 보다 나은 삶을 실현하기 위한 작업이다(지영숙, 1998). 이러한 의미에서 청년기의 생활설계는 스스로의 삶을 자율적으로 영위하고 성인으로서의 준비를 시작하는 그 첫 시기로서 인생 그 어느 시기보다도 생활설계가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가정학에서의 생활설계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가족생활주기를 중심으로 하여 가정이 성립된 형성기 이후의 시기에 주목하여 왔다. 그러나 삶은 생활의 연속적인 성격으로 인해 한 인간으로서 결혼 전과 결혼 후의 삶은 분리되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런 의미에서 가정의 생활설계는 신혼기부터가 아니라 청년기의 생활설계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생활설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나 하나는 가족생활주기면에서 주기의 연속성에 기초하여 직면하는 문제와 성취해야 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접근법이며, 다른 하나는 가정생활의 구조면에서 한 가지 구조에만 그치지 않고 다양한 생활측면을 고려한 접근법이다. 후자의 예로 伊藤やづ(1988)은 가정생활구조를 일곱 가지 측면 건강, 정신, 인간관계, 경제, 생활시간, 생활공간, 생활기술로 나누어 접근하였다(지영숙, 2004 재인용). 생활설계를 위한 방법은 생활설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환경 및 생활실태를 파악한 후 개인의 가치관에 따른 목표를 설정하여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때 목표를 수립함에 있어서 바람직한 미래상을 설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바람직한 미래상의 설정은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합의된 바람직함을 그 근거로 삼는다면 본인의 수준과 표준을 객관적 지표로서 인식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수준과 표준의 차이를 인식하고 보다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진단 점검하여 삶의 균형을 맞추어 그에 대한 생활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지침을 작업하는 것이 일련의 생활설계 작업이 된다.

바람직한 표준설정을 위하여는 발달과업 중심의 진단척도가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데, 이 때 학술적인 발달과업 뿐 아니라 각종 비학술 서적이나 해당주기에 속하는 대상들을 통한 인터뷰를 통해 표준설정을 위한 항목을 작성할 수 있다.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한 중년기 가정의 생활진단 척도(지영숙·이광자·곽소현, 2003)에서는 선행연구 고찰과 더불어 웹사이트 조사 및 중년주부 인터뷰를 통하여 중년기의 중점 과업 중심으로 부부관계/ 자녀교육/ 경제/ 가사노동/ 건강/ 부모와의 관계/ 취미생활의 총 7가지 영역 35문항의 척도를 개발하였다. 은퇴기 생활설계를 위한 진단척도(지영숙·최보아, 2002)에서는 선행연구, 신문, 잡지, 서적, 해당 집단의 코호트 조사, 해당주기 노년층의 인터뷰를 통하여 인간관계/ 역할수행/ 경제/ 신체 심리 건강의 4가지 영역 28문항의 척도를 개발하였다. 주기별로 진단척도를

위해 구성된 영역은 해당주기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모든 영역에는 신체/ 정신/ 인간관계/ 경제/ 시간/ 공간/ 기술의 생활설계의 7가지 제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청년기의 생활설계도 우선 바람직한 미래상을 설정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 자아에 대한 깊은 탐색과정을 통해 자신의 위치, 역할, 능력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진단척도를 사용하여 자신의 발달과업 성취의 정도를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하나의 완성된 인격체로서 스스로의 삶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온전한 성인으로서 되기 위하여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직업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하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성립해야 한다. 성인기로서의 이행을 위한 바람직한 청년기의 모습에 도달하기 위한 준비는 그 다음 단계인데,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설정하고 그에 따르는 목표를 확인하며 세부적 표준설정을 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청년기의 생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선행연구는 전무하나, 의도적인 시간사용을 하였을 때의 생활에서의 주체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다. 즉 현재 자신의 시간 사용 수준에 만족할수록 그리고 미래 시간사용 수준을 높게 예측할수록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와 미래의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수준이 일치한 학생일수록 주체성과 주도성의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최남숙,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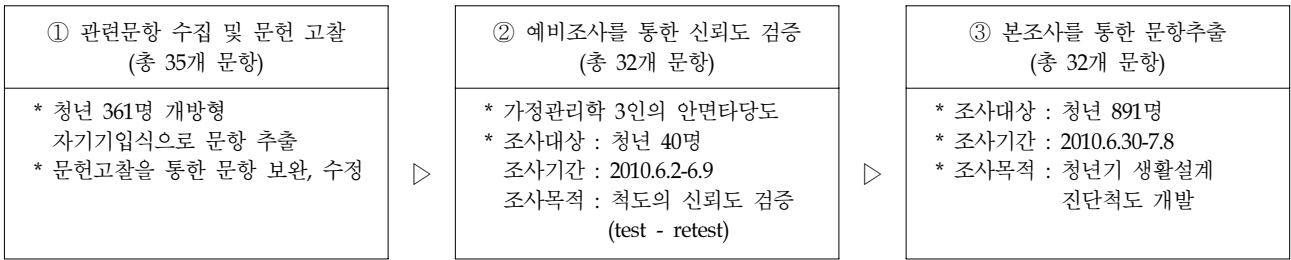
단지 몇 가지의 주요 발달과업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시야를 확대하여 책임감 있는 자율적인 하나의 성인으로서 또한 그 성인들이 이를 하나의 가정에 대한 준비로서 청년기의 삶의 영역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그 영역별 발달과업을 도출하여 청년기 생활설계를 위한 진단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절실히 요구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 생활설계 진단척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설문과 문헌조사를 통해 문항을 수집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척도개발에 있어 그 절차는 남수정(2006), 장현선(2009)의 개발 절차를 참조하였다<그림 1>.

첫째, 척도의 문항을 추출하였는데, 일차적으로 청년기에 속해있는 361명을 임의로 추출하여 2010.4.26 - 5.20까지 바람직한 청년기의 모습에 대한 20가지의 문항을 개방형, 자기기입식으로 나열하도록 하였다. 361명의 자기기입식 문항은 특정기준에 의거하여 분류하지는 않았으나 비슷한 문항끼리 묶고 수정되어 12가지 항목(계획/ 시간관리/ 공부/ 진로/ 경제/ 건강/ 취미/ 인간관계/ 가족/ 사랑/ 정서/ 기타)의 82개 문항으로 1차 정리되었다. 이차적으로는 해당 문헌 및 논문을 참고하여



<그림 1> 연구절차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896)

변인		빈도(N)	백분율(%)
성별	남성	410	45.8
	여성	486	54.2
연령	출생년도	나이(2010현재)	평균: 21.78세 (표준편차:1.99)
	1985년생	만 25세	211 23.5
	1986년생	만 24세	205 22.9
	1987년생	만 23세	156 17.4
	1988년생	만 22세	83 9.3
	1989년생	만 21세	72 8.0
	1990년생	만 20세	99 11.0
	1991년생	만 19세	49 5.5
	1992년생	만 18세	21 2.3
출생순위	외동이		45 5.0
	형제 중	첫째	53 5.9
		가운데(둘째, 셋째 등)	43 4.7
		막내	12 1.3
	자매 중	첫째	66 7.3
		가운데(둘째, 셋째 등)	44 4.9
막내		10 1.1	
남매 중	첫째	253 28.2	
	가운데(둘째, 셋째 등)	325 35.7	
	막내	45 5.0	
학력	대학교재학	334 37.3	
	대학교 졸업	499 55.7	
	대학원재학	54 6.0	
부모님과 동거여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음	642 71.7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음	254 28.3	

생활설계의 분류항목으로 체계화하는 과정을 거쳐 계획과 시간관리는 생활설계의 항목으로 공부는 진로에 포함되고 사랑과 가족은 인간관계의 항목으로 통합되어 최종 7가지 항목(생활설계/ 진로/ 경제/ 건강/ 취미/ 인간관계/ 정서) 35개 문항으로 통합 정리 되었다.

둘째, 정리된 35개의 문항은 3인의 가정관리학 전문가로부터 안면타당도를 검증받아 3개의 문항이 통합 수정되어 최종 32개의 문항으로 완성되었다. 이 32개의 문항은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청년 4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보다 정교한 척도개발을 위하여 5점보다 세분화된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1주일의 간격을 두고 검사-재검사(test-re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예비조사를 마친 32개 문항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문항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Cronbach's α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for windows 18.0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

균,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척도 구성을 위해 요인분석과 문항들간 상호관계를 산출하여 구성타당도를 살펴보고, 신뢰도를 위해서는 하위 영역별 및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 를 산출하여 최종 척도를 완성하였다.

3.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청년기 생활설계에 대한 최종진단척도를 구성하기 위해 2010.6.2-2010.6.9일에 걸쳐 4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32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부터 매우 그렇다의 7점 Likert척도의 형식으로 2010.6.30-2010.7.8일에 전문 인터넷 리서치 회사(www.inr.co.kr)을 통해 패널을 대상으로 본조사하였다. 본 조사의 조사대상자는 지역과 성별 유의 할당 추출법에 의해서 표집되었으며, 전문 소프트웨어인 검증전문 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실기재 및 누락 응답된 사례를 제외하고 총 896명을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896명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본 조사에는 410명(45.8%)의 남성과 486명(54.2%)의 여성이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평균 21.78세로 출생년도 1985년도에서 1992년도에 태어난 만 나이 25세에서 18세에 속한다. 출생순위는 외동이 5.0%를 포함한 첫째가 46.4%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둘째 셋째 등 가운데 출생순위가 45.3%, 그리고 막내가 7.4%를 차지하고 있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1.0%, 대학교 재학 중이 37.3%, 대학교 졸업이 55.7%,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이 6.0%였다. 부모님과 의 동거여부에서는 같이 살고 있는 응답자가 71.7%,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응답자가 28.3%으로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1. 청년기 생활설계 진단을 위한 척도 문항 구성

1단계로 문헌고찰을 통해 문항을 수집하고, 2단계로 예비조사를 통해 신뢰도 검증을 한 32개 문항을 선별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문항분석(item-to-total correlation)으로 하였는데, 각 요인과 항목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06 미만의 항목은 삭제 대상이었으나 한 가지 항목도 누락되지 않고 모두 .06 이상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최종 32개 문항이 결정되었다<표 3>.

2. 청년기 생활설계 진단척도의 유목화 및 신뢰도

예비조사와 문항추출 과정을 거친 총 32개 문항으로 청년기

생활설계 진단척도를 유목화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 EFA)을 실시하였다. 아이겐 값이 1이상인 요인을 추출하도록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method)을 실시하고, 하나의 요인이 높게 적재되는 변수의 수를 줄임으로서 구조를 단순화하는 직교회전(varimax) 방식을 사용하였다.

유목화 이전 요인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수와 사례의 수가 적절한지를 나타내주는 표본적합도인 KMO (Keiser-Meyer-Olkin)를 살펴보았는데, 이 검정은 변수간의 편상관을 통해 알아볼 수 있고 검정값이 0.8 이상이면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최혜영 외 3인, 2009). 본 연구의 청년기 생활설계 진단척도 32개 문항의 KMO 측도 값은 .94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위한 문항으로서 적합하였다. 또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요인분석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상관계수 행렬이 대각행렬로서 서로간의 상관관계가 없는지를 검정하는 것으로서 본 척도 32개 문항은 검정치가 14614.552(df = 496), 유의확률이 .005 이하로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기 생활설계 진단척도의 하위영역 및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32개 문항에 대한 유목화를 실시한 결과 7개의 요인인 전체 변량의 63.398을 설명하였고 각 문항들은 모두다 해당 하위영역에 .40 이상의 부하량을 보였다.

요인의 명칭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요인 중에서 높게 적재된 해당변수들과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상대적으로 요인 부하량이 높은 변인들을 중심으로 명명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전체변량의 14.25%의 설명력을 지니며 결단력, 자기 확신, 최선을 다함, 편견을 줄이고 비판의식을 키움, 부모님으로부터 정서적 독립, 평생의 취미생활 개발, 스스로가 잘하는 일을 인지, 가족들과의 편안한 관계, 대처능력의 내용으로 총 9개 문항에 해당된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성인으로서의 마음의 준비와 스스로의 자아정체감 정립에 관련된 내용으로 '성숙한 마음가짐'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전체변량의 10.23%의 설명력을 지니며 인생의 좌우명과 계획, 본받고 싶은 역할모델, 계획적 시간관리, 미래모습의 설계의 내용으로 총 4개 문항이다. 이 내용은 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의 내용으로 '생활계획'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요인은 전체변량의 9.68%의 설명력을 지니며 봉사활동, 다양한 독서, 일기쓰기, 다양한 체험, 스트레스 관리의 총 5개 문항이다. 이 영역은 주로 경험과 체험 그리고 반성과 관리를 통한 삶의 영역확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다양한 체험'으로 명명하였다. 네 번째 요인은 전체변량의 8.74%의 설명력을 지니며 멘토, 대인관계의 폭, 원활한 의사소통, 이성교제, 즐거운 친구관계의 내용으로 총 5개 문항에 해당하며 가족을 제외한 인간관계의 영역으로 '친밀한 인간관계'로 명명한다. 다섯 번째 요인은 전체변량의 7.74%를 설명하며 건강한 외모, 이미지관리, 기초 체력향상의 3개 문항이며

<표 3> 척도의 구성과 삭제된 문항

문항		1단계 : 안면 타당도	2단계 : test- retest	3단계 : 문항 분석	비고
생활 설계	1 나는 확고한 인생의 좌우명과 계획이 있다		.82	.77	
	2 나에게서는 본받고 싶은 역할모델이 있다.		.75	.70	
	3 나는 계획적으로 시간을 관리하고 있다.		.66	.81	
	4 나는 일기 쓰는 습관을 통해 하루를 돌아본다.		.68	.67	
	5 나는 어려운 일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고 있다.		.71	.71	
진로	6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잘 알고 있다.		.61	.70	
	7 나는 미래의 내 모습을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66	.83	
	8 나는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성적관리, 자격증취득 등에 노력하고 있다.		.79	.82	
	9 나는 다양한 취업준비(정보탐색, 인턴쉽, 해외연수 등)에 노력하고 있다.		.62	.80	
경제	10 나는 경제 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돈 관리법에 관심이 있다.		.73	.80	
	11 나는 미래를 위한 장기경제계획이 있다.		.65	.76	
	12 나는 소액이더라도 저축이나 적금을 하고 있다.		.72	.79	
	13 나는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다.		.59	.62	추후 신뢰도 검사시 제외
건강	14 나는 기초체력 향상을 위해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65	.78	
	15 나는 외모를 건강하게(아름답게) 가꾸려고 노력한다.		.79	.81	
	16 나는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이미지 관리에 노력한다.		.64	.82	
	17 나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나만의 비법이 있다.		.70	.74	
취미 (경험)	18 나는 여행, 문화체험 등을 통해 많은 경험을 하고 있다.		.75	.75	
	19 나는 분야별로 다양한 책을 많이 읽고 있다.		.72	.76	
	20 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65	.75	
	21 나는 평생 즐겁게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 있다.		.73	.74	
인간 관계	22 나는 가족들과의 관계가 편안하다.		.63	.68	
	23 나에게서는 즐겁게 만나는 좋은 친구들이 있다.		.77	.72	
	24 나는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만나기 위해 이성친구를 사귀고 있다.		.65	.60	
	25 나는 깊이 공감해주고 이끌어주는 주변사람이 있다.		.75	.80	
	26 나는 각종 모임을 통해 대인관계의 폭을 넓히고 있다.		.78	.78	
	27 나는 주변 사람들과 원활하고 진솔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68	.81	
	28 나는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늘 전한다.	삭제			삭제
정서	29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64	.76	
	30 나는 누구보다도 내 스스로를 믿는다.		.70	.81	
	31 나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69	.80	
	32 나는 맺고 끊음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결단력을 키우고 있다.		.74	.84	
	33 나는 편견, 선입견을 줄이되 비판의식을 키우려 노력한다.		.72	.73	
	34 나는 실패를 경험해 보고 반성하려 노력한다.	통합수정			삭제
	35 나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자립심을 키운다	통합수정			삭제

신체 가꾸기의 내용으로 ‘건강한 신체관리’로 명명한다. 여섯 번째 요인은 전체변량의 6.63%를 설명하며, 저축이나 적금의 실행, 경제 관리의 중요성 인지, 장기경제계획, 아르바이트의 경험여부의 내용으로 총 4개 문항이다. 이러한 내용은 경제영역의 내용으로서 ‘실리적 경제계획’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 요인은 전체변량의 6.11%의 설명력을 지니며 취업을 위한 성적 관리, 다양한 취업준비(정보탐색, 인턴쉽, 해외연수 등)의 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영역은 ‘적극적 취업준비’로 명명한다. 결론적으로 7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32개 문항의 청년기 생활설계 진단척도가 구성되었다<표 4>.

청년기 생활설계 진단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하위영역별 내적합치도 계수 및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32개 문항의 전체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 값은 .939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척도 하위 요인별로 산출한 신뢰도 계수는 .72에서 .88로 나타나 내적합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13번 문항의 “나는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다”의 문항은 수정된 항목과 전체상관계수가 .31로 낮고, 문항 제외시 Cronbach’s α=.78로 상승하게 되며, 경제와 관련한 내용이지만 준비와 경험상의 차이가 있어 다른 3개 문항과 의미적 관련성이 다소 동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삭제하기로 하였다. 13번 문항 삭제 후 총 31개 문항의 완성된 척도의 신뢰도는 .940으로 상승하였다.

요인1의 “성숙한 마음가짐은”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표 4> 요인분석결과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아이겐값	설명 변량
문항32	.722	.256	.207	.125	.034	.137	.116		
문항30	.704	.204	.018	.168	.239	.173	.093		
문항31	.688	.220	-.017	.198	.144	.189	.091		
문항33	.636	.134	.193	.125	.042	.178	.040		
문항29	.550	.189	.237	.279	.044	.201	-.156	4.560	14.251
문항21	.506	.072	.367	.061	.378	-.005	.128		
문항6	.486	.482	.116	.026	.128	.203	.200		
문항22	.475	.097	-.052	.414	.267	.116	.224		
문항5	.426	.416	.294	.061	.093	.224	.179		
문항1	.274	.746	.072	.143	.117	.103	.127		
문항2	.203	.664	.037	.196	.211	.100	.003	3.275	10.233
문항3	.137	.652	.344	.177	.087	.176	.177		
문항7	.378	.575	.225	.078	.049	.097	.409		
문항20	.086	.163	.661	.094	.138	-.107	.226		
문항19	.382	.058	.650	.085	.064	.074	.002		
문항4	-.067	.284	.600	.158	.009	.039	.265	3.100	9.688
문항18	.287	-.033	.569	.288	.246	.115	.140		
문항17	.419	.174	.474	.121	.354	.119	.052		
문항25	.243	.173	.078	.719	.229	.115	.084		
문항26	.218	.340	.317	.650	.138	.071	.003		
문항27	.410	.216	.158	.648	.189	.051	.082	2.797	8.741
문항24	-.078	.067	.356	.595	-.079	.126	.140		
문항23	.371	-.039	-.066	.559	.398	-.035	.227		
문항15	.089	.155	.225	.168	.757	.151	.105		
문항16	.232	.228	.149	.175	.737	.134	.066	2.476	7.737
문항14	.078	.360	.448	.102	.500	.040	.034		
문항12	.179	.139	.089	.114	.046	.802	.031		
문항10	.318	.236	-.048	.022	.208	.685	.105	2.123	6.634
문항11	.286	.431	.270	.095	.055	.571	.137		
문항13	.186	-.130	-.225	.203	.404	.451	.105		
문항8	.155	-.155	.194	.142	.135	.043	.828	1.956	6.113
문항9	.083	.213	.276	.158	.089	.172	.758		

며 Cronbach's α=.88로 나타났으며 요인2의 "생활계획"은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Cronbach's α=.82이다. 요인3의 "다양한 체험"은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α=.77이다. 요인 4의 "친밀한 인간관계"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α=.80이고, 요인 5의 "건강한 신체관리"는 3개 문항으로 Cronbach's α=.78이다. 요인 6의 "실리적 경제계획"은 3개 문항으로 Cronbach's α=.72, 요인7의 "적극적 취업 준비"는 2개 문항으로 Cronbach's α=.82로 나타났다<표 5>.

7가지 영역 31개 문항의 청년기 생활설계 진단척도는 기존의 청년기 연구들이 진로탐색과 배우자 선택이라는 두 가지 주제에 한정되어 있는 틀을 벗어나 청년기의 성숙한 마음가짐, 친밀

한 인간관계, 생활계획, 실리적 경제계획, 체험과 신체 등 보다 넓은 관점으로 청년기를 조망하였다. 또한 청년기의 주요 발달 과업으로 제시되어 왔던 정체감의 확립, 진로의 결정, 친밀한 관계의 정립이라는 3가지 발달과업이 모두 이 척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정체감 확립에 대한 지표는 성숙한 마음가짐의 항목에서, 진로의 결정에 대한 지표는 생활계획과 적극적 취업준비의 항목에서, 친밀한 관계의 정립에 대한 지표는 친밀한 인간관계의 항목에 반영되었다. 또한 이 척도는 생활설계의 7가지 영역(건강/ 정신/ 인간관계/ 경제/ 생활시간/ 생활공간/ 생활기술)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데, 청년기 발달과업에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되어 놓치기 쉬운 건강, 경제의 생활영역과 시간

<표 5> 청년기생활설계 진단척도의 신뢰도

문항		수정된 항목 -전체상관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s α	전체 신뢰도 계수	
성숙한 마음가짐	32	나는 맺고 끊음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결단력을 키우고 있다.	.72	.85	.88
	30	나는 누구보다도 내 스스로를 믿는다.	.72	.85	
	31	나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69	.86	
	33	나는 편견, 선입견을 줄이되 비판의식을 키우려 노력한다.	.58	.87	
	29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58	.87	
	21	나는 평생 즐겁게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 있다.	.54	.87	
	22	나는 가족들과의 관계가 편안하다.	.54	.87	
	6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잘 알고 있다.	.61	.87	
	5	나는 어려운 일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고 있다.	.60	.87	
생활계획	1	나는 확고한 인생의 좌우명과 계획이 있다	.70	.74	.82
	2	나에게는 본받고 싶은 역할모델이 있다.	.58	.80	
	3	나는 계획적으로 시간을 관리하고 있다.	.65	.77	
	7	나는 미래의 내 모습을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63	.77	
다양한 체험	20	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53	.73	.77
	19	나는 분야별로 다양한 책을 많이 읽고 있다.	.57	.71	
	4	나는 일기 쓰는 습관을 통해 하루를 돌아본다.	.48	.75	
	18	나는 여행, 문화체험 등을 통해 많은 경험을 하고 있다.	.58	.71	
17	나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나만의 비법이 있다	.54	.72		
친밀한 인간관계	25	나는 깊이 공감해주고 이끌어주는 주변사람이 있다.	.69	.73	.80
	26	나는 각종 모임을 통해 대인관계의 폭을 넓히고 있다.	.67	.73	
	27	나는 주변 사람들과 원활하고 진솔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70	.72	
	24	나는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만나기 위해 이성친구를 사귀고 있다.	.38	.84	
	23	나에게는 즐겁게 만나는 좋은 친구들이 있다.	.53	.77	
건강한 신체	15	나는 외모를 건강하게(아름답게) 가꾸려고 노력한다.	.69	.60	.78
	16	나는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이미지 관리에 노력한다.	.64	.67	
	14	나는 기초체력 향상을 위해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52	.81	
실리적 경제계획	12	나는 소액이더라도 저축이나 적금을 하고 있다.	.58	.62	.72
	10	나는 경제 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돈 관리법에 관심이 있다.	.63	.60	
	11	나는 미래를 위한 장기경제계획이 있다.	.55	.64	
	13	나는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다.	.31	.78	
적극적 취업준비	9	나는 다양한 취업준비(정보탐색, 인턴쉽, 해외연수 등)에 노력하고 있다.	.70	-	.82
	8	나는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성적관리, 자격증취득 등에 노력하고 있다.	.70	-	
전체				.94 (31문항)	

관리의 생활시간, 가정/ 사회에서의 생활공간 그리고 이 전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관점인 생활기술의 측면까지 모두 포함하였다. 이처럼 청년기 주요 발달과업이 생활설계 영역에 잘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년기 생활설계를 위한 진단척도는 보다 조화롭고 균형있는 삶의 진단과 조망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성인으로서 첫 걸음을 딛는 청년기의 생활설계를 위해, 청년기 삶의 영역을 분석하고, 발달과업을 유목화하여 청년기 생활설계 진단척도를 개발하였다. 선행연구와 설문 조사를 통해 문항을 수집하고 안면타당도 및 예비조사를 통해

32개 문항으로 정리하였으며,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통해 최종 31개 문항으로 척도가 구성되었다. 31개 문항의 척도는 청년기에 속한 대상자들이 결혼과 직업성취로 인한 성인이라는 신분을 보다 더 안정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자가진단 할 수 있는 문항으로 하위7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7가지 영역은 성숙한 마음가짐, 생활계획, 다양한 체험, 친밀한 인간관계, 건강한 신체, 실리적 경제계획, 적극적 취업준비이다.

두드러진 만혼형상과 청년실업으로 점점 더 길어지고 있는 청년기는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의 고민의 시기이기도 하다. 청년기는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하고, 비판 의식과 결단력을 키우고, 부모님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고 자신에 대해 깊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성인으로서의 성숙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또한 인생의 좌우명과 계획 또는 역할 모델을 설정하여 미래생활을 계획해야 하며, 흔히들 '젊은 시절 많은 경험을 하라'는 말처럼 다독을 통한 간접 경험 뿐만 아니라 여행이나 문화체험, 봉사활동을 통한 직접경험을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반성의 시간도 가져야 한다. 또한 인생의 멘토를 설정하고 대인관계의 폭을 넓히며, 친구 이성과의 진솔한 의사소통을 통한 친밀한 인간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청년기는 실리적인 경제계획을 하여야 하는데, 경제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아 장기적 경제계획을 세우고 소액이더라도 저축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외모를 건강하게 가꾸고 좋은 이미지를 주도록 노력하며 꾸준한 운동을 통해 신체관리를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정보탐색, 해외연수, 성적관리,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적극적인 취업준비를 해야 한다.

청년기 생활설계 진단 척도의 개발은 기존 생활설계와 관련한 연구들이 가정생활주기가 시작되는 신혼기 이후의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한계점에서 출발했다. 한 사람의 건강한 성인이 보다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삶의 연속적인 측면에서 가정형성 이전의 시기인 청년기에 올바른 성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현재의 청년기가 청소년의 특징이 유예되면서 결혼과 직업성취가 늦어지고 있어 이 시기에 속한 청년들에게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는 진단척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청년기 생활설계 진단척도는 사회적으로 볼 때, 수많은 청년들의 삶의 지침이 되는 기본적인 모습을 제시한다. 이 표준에 의거해 자가진단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설계해 나간다면 성인기로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이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진로탐색과 독립이라는 두 가지과제 이외에도 다른 삶의 영역들에서의 진단을 고르게 제시하여 편중 없는 균형 잡힌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척도의 개발은 학문적으로 볼 때에는 생활설계 분야의 연구대상을 넓히는데 기여하였다. 생활을 설계하는 것은 본인의 삶에 자율성과 주체적인 목표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생활설계는 결혼이라는 가정이 형성된 이후의 시기부터가 아닌 독립이라는 청년기에서부

터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청년기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삶의 영역을 다양하게 조망하여 청년기의 건강관리, 청년기의 경제관리, 청년기의 인간관계 등 새로운 연구영역이 탐색되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는데 청년기 생활설계에 대한 기존 연구가 전무하고, 생활 설계적 관점(최보아, 2010)에서 보았을 때 자아정체감과 부모자녀관계에서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연구만 진행되어 있어 기타 다른 삶의 영역(예를 들면 경제, 신체, 자아정체감 이외의 다른 정서, 인간관계 등)의 발달과업 규명에 있어 새로운 시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보다 정교한 후속연구를 통하여 이에 대한 경험적 규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척도는 그 신뢰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이 척도와 비교할 수 있는 유사한 척도가 전무하여 준거타당도와 공인타당도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제한점이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통계기법을 활용한 타당화과정이 필요하다.

이 진단척도는 청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학교나 공공기관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활용되어 질 수 있어야 한다. 자가 측정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의 항목에 보다 노력을 기울이고, 해당영역의 목표설정을 통해 보완해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후속연구로서 이 척도에 해당하는 7가지 영역이 반영된 청년기 생활설계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병행된다면 청년들의 건강한 발달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김종서 · 남종걸 · 정지용 · 이종환(1983). 발달과업, 청소년 대책위원회 편. 청소년백서.
- 남수정(2006).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 척도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5), 175-190.
- 박아청(2004). 청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단계의 특성분석. **교육심리연구**, 18(1), 301-312.
- 박장희 · 정옥분(2002). 복합순환모델에 의한 가족체계유형과 청년기 자아정체감 발달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0), 49-63.
- 윤영란(2007). 대학생의 진로의식에 관한 분석 연구. **교육문화연구**, 13(1), 123-168.
- 윤진(1985). **성인·노인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희영 · 최태진(2005). 부모의 양육행동과 후기 청소년의 심리적 분리와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6(2), 93-123.
- 장현선(2009). 인터넷 쇼핑에서의 충동구매 측정을 위한 척도의 개발 및 특성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4), 127-139.
- 전상진 · 정주훈(2006). 한국후기 청소년 세대의 발달경로와

- 성장유형. **한국사회학**, 40(8), 262-285.
- 지영숙(1998). **현대가족생활설계론**. 서울 : 도서출판 신정.
- 지영숙(2004). **가족생활설계론**. 서울 : 도서출판 신정.
- 지영숙 · 이영호(2001). 생활설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19(1), 221-234.
- 지영숙 · 이광자 · 박소현(2003). 중년기 전업주부의 생활진단 척도개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7(1), 23-29.
- 지영숙 · 최보아(2002). 은퇴기 생활설계를 위한 진단척도의 개발.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 5, 177-194.
- 최남숙(2005). 대학생의 시간사용 만족수준과 자아정체감 관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9(4), 81-93.
- 최보아(2010). 생활설계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 성과와 과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2), 79-90.
- 최혜영 · 신혜영 · 최미숙 · 조성연(2009). 한국 아동의 행복감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5), 1-10.
- 홍봉선 · 남미애(2003). **청소년복지론**. 양서원
- Baacke, D. (1999). *Jugend und Jugendkulturen*. Weinheim & München : Juventa Verlag.
- Chickering, Authur W. & Associates (1981). *The Modern American College*. anFrancisco ; Jossey. Inc, Publishers.
- Hurrelmann (1999). *Jugendphase Jugend*. Weinheim & München : Juventa Verlag, 50.
- Levinson, D.(1978). *The seasons of man's life*, N. Y. : Knopf.

접수 일 : 2010년 07월 14일

심사 일 : 2010년 09월 10일

심사완료일 : 2010년 10월 17일